無明은 반야지혜 걸림돌



新 불교사자성어

㊷ 무명장야(無明長夜)

중생(인간)은 매우 똑똑하고 현명하다. 혹자는 어리석다고 하지만 선과 악, 의(義)와 불의가 있음을 발견한 것도 중생이고, 진리와 번뇌, 극락과 지옥, 부처와 중생의 세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도 중생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 인간(중생)의 마음속에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바탕인 진여문(진여, 진리로 가는 길)과 중생으로 전전하게 되는 생멸문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당사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중생은 악(惡)과 무지(無知), 탐욕과 어리석음에 싸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싸여 있지만 싸여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지와 무명,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곳으로부터 해탈하라"고 했다. 무지, 무명은 탐(貪, 탐욕), 진(瞋, 분노 · 증오), 치(痴, 어리석음 · 무명 · 무지) 삼독 가운데 치(痴)와 같은 뜻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지, 무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명은 불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힌다. 그 이유는 무명이 깨달음과 반야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인데, 불교에서 수행이란 다름 아닌 이 무명을 제거, 추방하는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명은 마음이 사견(邪見, 잘못된 생각)이나 망집(妄執, 집착)에 싸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어두운 긴긴 밤에 비유하여 무명장야(無明長夜)라고 한 것이다. 미혹에 가려서 지혜 광명을 보지 못하고 끝없이 생사고해 속을 헤매고 있으므로 긴긴 어두운 밤에 비유한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구로 설하고 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어라."

필자가 어렸을 때 살았던 강원도 산골은 겨울이 무척 길었다. 산이 높아서 오후 4시가 되면 어둡기 시작하여 6시 경에는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 무명장야. 다음날 9시나 되어야 햇빛을 볼 수 있었다. 두메산골의 겨울은 12월이면 눈이 쌓이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이 되어야 녹았다. 산골의 겨울은 곧 무명장야였다.

무명은 진리에 어두운 것을 뜻한다. 진리에 어두워서 돈, 명예, 이성, 증오심, 분노 등 갖가지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말하면 현명하지 못함, 지식적 바탕이 없는 것, 지혜가 없는 것(無智) 등을 가리킨다. 동의어로는 생사장야(生死長夜)라고 한다. 태어나고 죽는 육도윤회의 기나긴 밤이라는 뜻이다.

또 무명은 한 인간의 행복이나 삶을 망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잡아함경〉 제334경(有因有緣有縛法經)'에는, "비구들이여,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인하여 무명(無明)이 시작되고 무명으로 인하여 갈애(愛, 집착과 애욕)가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 갈애(집착과 애욕과 탐욕)로 인하여 결국엔 업을 짓고 그 업(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이 시작된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12연기가 있다. 12연기는 생노병사의 윤회가 시작되는 과정을 12단계로 설명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명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 무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業)이 원동력이 되어 12연기의 윤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폭이나 범죄의 악순환에 한번 엮이면 쉽게 빠져 나오기 힘들듯, 한번 윤회의 고리에 엮여 들어가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윤회를 가장 싫어한다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명과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8정도를 실천하면 된다. 바른 견해, 생각, 말, 행동, 생활 등을 실천하는 한편, 나쁜 업을 쌓지 말아야 한다. 나쁜 업이란 신구의(身口意)로 짓는 나쁜 행동, 말, 생각 등인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악업을 짓는다. 바르지 못한 언행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곧 업이 된다. 우리의 삶도 좋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곧 업이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밀려나자마자 선상 엎었다면…



격절록 강설

㊷ 보수개당 4

[評唱 4]

後到洞山聰和尚處 又參大愚芝. 芝嗣汾陽昭 雲峰悅承嗣芝. 悅與雪竇游從最久 久參臨濟正法眼藏宗旨 雪竇最得芝和尚提誨. 所以雪竇會臨濟宗風.

(설두는) 뒤에 동산 총(洞山 聰) 화상의 처소에 갔고, 또 대우 지(大愚 芝)를 참례했다. 지(芝)는 분양선소(汾陽 昭)의 법을 이었고, 운봉 열(雲峰 悅)은 지 스님의 법을 이었다.

운봉 열과 설두가 가장 오래 동안 (지 스님을) 따라 다니며 임제(臨濟) 정법안장(正法眼藏)의 종지(宗旨)를 오래도록 참구했는데, 설두가 지 화상의 가르침을 가장 잘(깊이) 얻었다.

그래서 설두가 임제 종풍을 알았던 것이다.

雲峯悅知雪竇不嗣芝 一日與游山 特去勘他 問云 "入荒田不揀 信手拈來草 觸目未嘗無 臨機何不道" 雪竇拈起一莖禾示之. 悅不肯 云 "夢也未夢見在" 雪竇云 "你不肯即休" 雪竇知臨濟下宗風. 所以如此.

운봉 열이 설두가 지 화상의 법을 잇지 않은 것을 알고, 하루는 함께 산을 거닐다가 특별히 그를 감변하려 했다.

(운봉이) 물었다.

"거친 밭에 들어가 가리지 않고 손 가는 대로 풀을 집어 드니 눈 닿는 대로 일찍이 없던 것이 아니거늘, 때가 되었는데도 어째서 말하지 않습니까?"

설두가 벼 한 줄기(一莖禾)를 들어 보였다.

운봉 열이 긍정하지 않고, 말했다.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군요."

설두가 말했다.

"너는 바로 쉬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구먼."

설두는 임제 문하의 종풍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拈因這緣道 "保壽三聖 雖發明臨濟正法眼藏 要且只解無佛處稱尊. 當時這僧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推倒禪牀. 直饒保壽全機大用 也較三千里" 敢問諸人. 只如保壽打這僧 是全機 不是全機.

이런 인연으로 염해서 말하기를 "보수와 삼성이 비록 임제의 정법안장을 드러내 밝혔을지라도, 다만 무불처(無佛處)만 알고 이를 최고로 여긴 것이다.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이였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설사 보수의 전기대용일지라도 삼천리나 차이가 났을 것이다"고 하였던 것이다.

외람되지만 여러분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보수가 이 스님을 친 것은 전기(全機, 전기대용=대기대용)인가, 전기가 아닌가?

只如雪竇道 "這僧當時若是箇漢 纔被推出 便與掀倒禪牀" 當時若便掀倒禪牀 被保壽劈脊便棒時 又作麼生. 到這裏須是頂門具眼 方可見得他. 若未能如此 也須退步體究看. 是箇什麼道理. 敢問諸人.

다만 설두는 말하기를 "당시에 이 스님이 만약 이런 사람(是箇漢, 본색 납자)이였다면 밀려나자마자 바로 선상을 엎어버렸을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당시에 만약 바로 선상을 엎어버리고 저 보수의 등판때기를 후려갈겼다면 또 어땠을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정수리에 안목을 갖춰야 (頂門具眼)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면 모름지기 뒤로 물러나 몸소 참구해봐야 한다.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감히 대중에게 묻노라!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㊷ 이해의 길 22

대승불교는 이단인가?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마스타니 후미오(增谷文雄)는 불교사를 가리켜 이단을 포용하는 역사라고 하였다. 대승불교에 이르면 근본불교와는 성격이 다른 정토신앙이나 선불교 등이 등장하는데, 이를 내친 것이 아니라 포용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단을 추방했던 서양의 종교사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는 오히려 '이단에서 불교의 새로운 생명이 샘솟았음'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단(異端)이란 다른(異)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범주가 다르다. 사과와 배는 서로 다른 것이며, 지구가 네모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그런데 같은 종교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다른 입장을 보이면, 이단이란 이름으로 틀렸다고 단정하면서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 독선과 배타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단의 사전적 의미도 '정통(正統)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이라고 되어있다. 이단은 분명 정통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초창기와는 시대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해치거나, 심지어 종교 전쟁까지 일으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단을 포용하는 불교의 역사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본불교 입장에서 보면 대승불교는 이단이 맞다. 대승불교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붓다의 연기를 재해석한 공(空)사상으로부터 불성과 여래장, 유식불교, 밀교, 정토사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힘들게 전승한 붓다의 말씀인 경전을 마음 '심(心)' 한 글자로 압축하고 '불립문자 교외별전(不立文字 敎外別傳)' 을 강조한 선불교도 등장한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다름에도 정도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은 서로 다르지만 각이 셋이며 세 각의 합이 180도라는 본질은 같다. 즉 그 차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삼각형인 것이다. 근본불교가 정삼각형이라면, 대승불교는 직각삼각형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둘은 '불교' 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본질적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차이가 본질을 넘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은 아무리 크기나 모양이 다양하더라도 본질이 같지만, 삼각형과 사각형은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불교라는 본질을 벗어나면 '불교' 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불교라고 이름붙일 수 없는 신앙까지 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불교가 아닌데도 불자들은 대웅전에 들러 붓다께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산신각에 참배한다. 이런 비불교적인 요소까지 사찰에 두는 것은 포용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본질적 차이마저 포용하는 대승불교의 논리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방편설이다. 방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흔히 비유되는 것처럼 달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標月之指)은 방편이다. 달을 보는 것은 불교의 본질인 깨침을 의미한다. 달을 보기 위해 근본불교에서는 손가락이라는 방편을 제시했지만, 대승에서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볼펜이나 분필, 지팡이 등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였다. 그만큼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대승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가진 수많은 중생들을 큰(大) 배(乘)에 모두 태운 것이다.

근본불교 시선에서 보면 대승불교는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파격적이다. 귤과 천혜향의 차이가 아니라 귤과 사과의 차이라 할 만큼의 넓은 간극도 존재한다. '대승은 붓다의 말씀이 아니다(大乘非佛說)' 는 주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은 중생들의 다양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대승은 불교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상과 문화, 예술을 창출하였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실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